

스페인 네오리얼리즘의 미학원리와 이데올로기적 배경

김 춘 진 (서울대, 서문학)

I

전후 소설을 논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회의식의 대두와 맞물린 리얼리즘의 고찰이다. 물론, 셀라 Camilo José Cela, 델리베스 Miguel Delibes, 바예스테르 Gonzalo Torrente Ballester 등 주요한 작가들의 다양한 변신이나, 70년대 실험소설의 토대를 마련한 60년대의 다양한 소설 경향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란 뒤 스페인 사회의 현실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한편, 소설 형식의 주목할만한 변화를 실현한 네오리얼리즘이 전후 현대소설의 방향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형이상학적 소설, 실험소설, 윤리소설, 환상소설, 유머소설 등 여타 경향의 소설들보다¹⁾ 더욱 절박하게 당대의 문제의식을 표출한 네오리얼리즘 또는 '사회소설'이 문단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음은 오히려 당연한 노릇이었을 것이다.

사실, 네오리얼리즘이나 사회소설의 배경은 내란 이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제1차 유럽대전의 재앙,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같은 세계적 사건들은 스페인 사회에도 커다란 파급을 미쳤다. 사회노동운동이 확산되면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이데올로기의 국제적 대립의 장이 된 내란으로 치닫는다. 내란 이전의 스페인은 30년대 신자유주의 정권과 공화민주정이 일시적으로 승리를 구가하기도 했지만, 절대주의와 자유주의

1) 50년대에 여전히 전통 소설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새 있는 작품 경향은 '36년 세대 Promoción del 36'에 속하는 Agustí, Cela, Delibes, Laforet, Torrente, Zunzunegui를 들 수 있다. 60년대의 형이상학적 소설 작가로는 Manuel García Viñó, Carlos Rojas, Andrés Bosch, J.V. Cadellans, Alfonso albalá, Antonio Prieto, J.T. Cabot를 들 수 있고, 실험소설 작가로는 Juan Benet, Gonzalo Suárez, José María Guelbenzu, Germán Sánchez Espeso, Juan Goytisolo (*Parábola de un naufragio*)를, 윤리소설이나 실존주의적 작가로는 Manuel Arce, A. Martínez Menchón, Carmen Martín Gaité, Jesús Torbado 를, 마술적 리얼리즘(환상주의)의 작가로는 Alvaro Cunqueiro를, 유머소설 작가로는 Francisco Umbral과 Manuel Vázquez Montalbán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이의 전통적 대립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정부주의나 급진 사회노동 운동과 극우 세력의 등장으로 이념적 갈등은 더욱 복잡해져 갔던 것이다.

계급의식의 대두와 이념투쟁의 확산에 주목하여 오르테가 José Ortega y Gasset는 “대중의 사회권력에의 등장”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사상을 삶의 필요로 사용해왔다면, 이제는 삶이 사상에 봉사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²⁾ 자유주의자와 다양한 경향의 사회주의 세력을 포함하는 대중 혁명 세력은 낡은 절대주의 앙시아레짐을 축출하고 새로운 사회가치관과 제도를 이식하고자 하였다. 하우저 Arnold Hauser는 30년대를 “사실주의와 행동주의 시대”로 규정하였거니와,³⁾ 이 무렵의 스페인 문학이 현실 비판과 사회 이념을 지향하게 된 것은 독일, 불란서, 영국과 이태리 등에서 전개된 문학의 사회화라는 역사적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 혹자는 사회소설의 전통을 19세기의 ‘비판적 리얼리즘 Realismo crítico’으로까지 소급시키고 있지만,⁴⁾ 20세기의 사회소설은 이미 그것과 역사적 사회적 이념적 배경을 달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페인의 사회소설이라 하더라도 루카치, 그람시 등으로 대변되는 리얼리즘의 국제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다.

1926년 디아스 페르난데스 José Díaz Fernández는 『하층민 Los de abajo』의 서평을 통해 현대소설의 비밀은 ‘하층민’의 비극적 상승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29년 코르순스키 J. Korsunsky의 『예술과 사회적 삶 El arte y la vida social』의 스페인어 번역판은 예술가와 사회현실과의 필연적 관계를 인식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다.⁵⁾ 이 무렵부터 사회소설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거리, 광산, 공장 등의 노동자들이 귀족이나 부르주아지 주인공들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주의 소설을 모델로 한 스페인 사회소설은 우익 독재 정권의 검열 강화와 내란 중 다수 작가들의 국외 망명으로 퇴조해 갔다.

결국, 사회소설의 전통은 내란 이전에 확립되어가고 있었다고 할 것이지

2) *La rebelión de las masas*, Obras completas, Alianza, vol. 4, Madrid, 1983, pp. 143, 190.

3)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현대』 (백낙청, 염무웅 역), 창작과 비평사, 1974, p. 230.

4) María Dolores de Asís Garrote, *Ultima hora de la novela en España*, pp. 26-27.

5) 내란 전에 사회적 문제의식을 다룬 작가들로는 J. Díaz Fernández, Manuel D. Benavides, César M. Arconada, Ramón J. Sender 등을 들 수 있다. 내란 전의 ‘사회소설’에 대해서는 Eugenio de Nora, *La novela española contemporánea*, Gredos, Madrid, vol. II, 1973, cap. 14를 참조할 것.

만, 본격적 의미의 사회소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50년대부터이며, 실제로 여기서 논하는 '사회소설'은 5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일련의 소설들을 가리키려는 것이다. 특히 내란과 유럽대전 이후의 피폐한 경제현실과 정신적 탈진감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949년의 『벌집 *La colmena*』은 내용과 형식의 혁신을 통해 리얼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는 이른바 전후소설의 시금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힐 까사도 Pablo Gil Casado⁶⁾는 사회의 유한과 나태, 불의와 불평등을 제시하고 비판할 때만이 사회소설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1)사회현상, 또는 불평등, 불의를 다루고, 2)그러한 현상이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사회 일부 계층 또는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이어야 하며, 3)그 문제 제시가 현상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4)고발적이거나 비판적 의도를 지녀야 하며, 5)현장 진실을 왜곡하는 어떤 것도 배제된 '정선된 리얼리즘 *realismo selectivo*'인 데다가, 6)'복수의 주인공' 또는 '계급 인물'의 등장상을 통해 현실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사회소설의 주요한 특징으로 열거한다.

요컨대 힐 까사도는 사회소설이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불의이며,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계층간의 불평등 상황을 재현하는 집단적 사회의식이라는 것이다. 그의 정의가 여전히 명쾌해 보이지 않는 것은 장르적 개념과 이념적 분류가 불분명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소설 *La novela social*과 네오리얼리즘 *El Neorealismo*의 이분화에 이르면, 그 구분의 준거가 소설 형식에 있는 것인지, 이념적 태도의 차이에 있는 것인지 더욱 모호해진다. 까사도의 사회소설에 대한 정의의 준거들은 그대로 네오리얼리즘 소설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르떼가는 네오리얼리즘 소설을 스페인 정치-사회 소설, 더 나아가 사회주의 소설의 첫 단계로 파악하지만,⁷⁾ 두 소설의 선후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개념의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네오리얼리즘 소설을 사회소설과 변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어떠한 준거를 설정할 수 있는가? 그러한 논의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은, 네오리얼리즘으로 일컬어지는 일군의 소설들을 묶어 하나의 하위장르로 논할 때 거기에 속하는 작가의 분류조차도 혼란을 유발한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이를테면,

6) *La novela social española*, Seix Barral, Barcelona, 1968. *Rec. de Novela y cultura española de postguerra* (Fernando Alvarez Palacios, EDICUSA, 1975, pp. 41-42).

7) <<Nuevas direcciones en los novelistas españoles de la 'Generación de medio siglo'>>, *NortedAmsterdam*, XIII, número 4-6, 1972, pp. 87-90.

비뇨 García Viñó는 알데코아를 네오리얼리스트로 구분하지만, 존스 R. O. Jones와 디아스 페르난데스 J. Díaz Fernández는 산토스 Fernández Santos, 마르틴 가이테 Carmen Martín Gaité, 산체스 페를로시오 Sánchez Ferlosio, 마투테 Ana María Matute 등을 포함시킨다.⁸⁾ 또한, 『하라마 *El Jarama*』는 사회소설로 간주되기도 하고 네오리얼리즘 소설의 절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두가지 소설 경향은 사실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이며, 개인을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조건지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사회지향적 관점에서 일치한다.

네오리얼리즘에서는 사회소설에서든 사회적 문제의식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게다가 사발라 Iris Zavala와 함께 사회소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노라 Eugenio de Nora의 명제를 받아들여 “정치의식화 또는 이념화되어가는 ‘비판적 리얼리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⁹⁾으로 간주한다면, 모호하게 구획된 사회소설과 네오리얼리즘은 한 묶음에 ‘비판적 리얼리즘’이란 말로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르를 구별하고자 한다면, 그 기준은 현실 문제에 대한 접근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네오리얼리즘 소설은 사회적 문제 제시에 있어서 훨씬 소극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고발적이면서도 관조적이고 구체적 미래의 전망이나 이념적 선동을 목표로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정태적이고 현실 제시는 평면적일 것이다. 사회소설이 사회적 불의와 계급적 갈등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면, 네오리얼리즘은 내란과 사회계층의 계급의 발생이라는 현실 인식의 역사적 측면을 더 강조하리라는 일반적 가정을 먼저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II

네오리얼리즘이 말 그대로 리얼리즘인 한, 사회적 현실의 현상유지 status quo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성향을 내포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주지하다시피

8) 반면에, 사회소설 작가들로는 F. Avalos, J.M. Caballero Bonald, F. Candel, Ferrer-Vidal, A. Grosso, J. López Salinas, J. Marsé, R. Nieto, L. Olmo, D. Sueiro가 일컬어진다.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VIII, Crítica, Barcelona, 1981, p. 332)

9) *Historia social de la literatura española*, Castalia, Madrid, III, 1984, pp. 202-203.

quo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성향을 내포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주지하다시피 네오리얼리즘 소설은 현실비판과 사회적 불의에 대한 고발과 증언이요, 스페인 내란과 세계대전이 물려준 참담한 삶의 현장 재현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문제는 이들 소설이 제시하는 현실고발이 스페인 사회구조를 어떤 역사적 입장에서 전망하고 있는가이다.

문학의 초점이 사회현실로 맞추어졌다면,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이념적 가치를 모색하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좌절감을 위한 좌절감의 토로가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현실로의 방향 설정을 의미할 것이다. 네오리얼리즘 소설은 과연 그러한 새로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 보여주는가?

전후 스페인의 사회질서는 전체주의의 획일적 이념에 의해 통제되는 계층적 사회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네오리얼리즘 소설을 통해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러한 정치사회적 구조에 대해 외견상 엄격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 통제 사회에서 리얼리즘 문학이 직면하게 될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네오리얼리즘은 현실복제라는 도식화된 리얼리즘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복제전사라는 전통적 리얼리즘의 반영기법이 오히려 현실인식을 왜곡시킬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대두한 것이다. 네오리얼리즘을 '속리얼리즘 Infrarealism'으로 환칭하게 된 것은¹⁰⁾ 리얼리즘의 총체적 현실반영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던 단편적 현실이나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삶의 구석구석을 국부적으로 확대 묘사하고 세밀하게 전경화하려는, 이른바 '모사 원리의 기술적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컨대, 네오리얼리즘은 현실모사의 내재적 한계와 이념적 독재의 외적 한계상황에 당도한 전후 스페인 리얼리즘의 긴박한 문제의식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네오리얼리즘이 배경으로 한 전후의 스페인 사회는 두가지 관점에서 전망될 수 있다. 하나는 철저한 전체주의 질서의 확립 과정에서 생겨난 강력한 지배체제와 이념이며,¹¹⁾ 다른 하나는 내란과 세계대전을 통해 파생된 경제적

10) Guillermo de Torre, *Historia de las literaturas de vanguardia*, Guadarrama, Madrid, 1971, tomo III, p.143.

11) 계층적 사회 질서는 전체주의 이념을 앞세운 정치세력과 카톨릭을 세속적 이념으로 전락시켜 실질 권력을 장악한 교회 세력은 물론, 그러한 지배권력에 의해 비호되는 지주계급에 의해 철저하게 보수화된다. 주권은 총통 El caudillo에게 주어지고 모든 스페인인들이 입법 행정 사법에 공조하는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사회체제를 지향하면서, 군사적 승리에 의한 사회 구원에서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한다. 프랑코 파시즘의 특성은 눈여겨 볼일이다. 파시즘은 본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연장으로 자본주의가 맞은 노동자 쫓기, 공황등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피폐화와 정신적 좌절감이다. 이 두가지 현상이 개인이나 계층간의 사회적 관계를 구조화해 나가는 주요한 결정 요인이었음은 틀림없다. 지배 계층은 사회적 통일과 일체화의 이념적 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소외 계층은 그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난과 좌절의 현실에 대한 저항을 체념하도록 강요된다.

게다가, 교회는 세속적 권력기구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따라서 교회 이데올로기가 정치 이데올로기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속적 교회 기구였던 오쁘스 데이 Opus Dei는 초기에 칼비니즘 식의 교회 쇄신을 목표로 했지만, 마침내 일인 주권하의 중앙집권적 조직에서 전제적이고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완전한 '사회 정복 Conquista de la sociedad'의 목표를 달성했다.¹²⁾ 스페인의 현실에 구원의 실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오히려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독재를 강화하여 체제의 안정만을 도모했다는 사실은, 전후 스페인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고뇌의 폭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네오리얼리즘의 카메라에 맞추어진 현실적 문제는 지배 권력의 메카니즘이 아니라 그로 인해 희생되는 다양한 인물과 사회 집단의 무력감과 사회적 고독이었다. 참담하게 버려진 스페인의 대지와 빈곤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스페인인들의 실존은 존재 그 자체로 고독을 짊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그 고독을 더욱 짓누르는 것은 사회 구성원 또는 그룹간의 단절 의식과 그로 인해 담혀진 절망적 미래, 희망없는 현실에서의 좌절과 고독감이다. 그것은 개인이 존재의 자유를 통해 터득하는 고독이 아니라, 빈자와 부자, 자연인과 지식인, 노동자와 자본가, 도시와 농촌과 같은 계층간은 물론 세대간의 단절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회적 고독으로 나타난다.¹³⁾

『하라마 강』의 젊은이들, 『별집』의 마드리드인들, 카르멘과 마리오, 『성

제였다 (Douglas Keller, *Critical Theory, Marxism and Modernity*, John Hopkins Univ. Press, Baltimore, 1989, pp. 66-7).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그러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파시즘이 대두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전근대적 토지제도의 수호라는 다른 문제가 걸려있다. 프랑코 정권이 내세운 스페인 제국으로의 복귀는 전근대적 스페인 식민제국 시대의 향수를 반영하는 것이며, 전통적 토지귀족의 이해관계와 프랑코의 권력의 결탁은 필연적이었다.

12) 이는 현대적 테크노크라시(능률성원리)와 과거의 전제주의적 통합주의의 결합이 이루어낸 결과였다 (Carlos M. Ramas, *La crisis española del siglo XX*, FCE, México, 1976, p. 376).

13) 전통 부르주아지 및 전쟁갑부 등 새로운 계급분열과 함께 특히 50년대 후반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유입된 농촌 인구라는 새로운 무산 소외계층은 그러한 계층간 단절과 고립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난 사람들 *Los bravos*』의 농부들, 알데코아 I. Aldecoa의 단편들에 등장하는 소외된 인물들은 모두가 실존을 경험할 수 없는, 오로지 사회적 모방으로 규정되는 유형적 인물들이다. 그들은 주인공일 수 없는 주인공들이며, 단절되고 고립된 삶의 공간에 매몰된 반영웅들이다. 오르떼가는 소설이 원초부터 비극적인 동시에 회극적이라고 일렀거니와, 네오리얼리즘은 오르떼가가 말하는 소설의 비극적 동기와 회극적 동기를 변용한다. 오르떼가가 말하는 소설의 원초적 비극성은 존재실현의 의지와 존재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며, 회극성은 소설의 기원인 모방 *mimus*의 ‘흉자적’ 본질에서 비롯된다.¹⁴⁾ 그러나 네오리얼리즘은 존재실현의 갈등조차 보일 수 없는 숙명적 군집성에서 비극적이며, 대상지향적이지 아니라 자기지향적 모방의 흉자라는 점에서 자조적으로 회극적이다. 그들의 삶은 존재한다기보다 존재되어지는 무기력한 생존 공간이며, 행동보다는 침묵으로 일관된 질서아닌 질서에 의해 지탱된다.¹⁵⁾

이쯤이면, 네오리얼리즘의 현실 반영은 지극히 정태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내란 후 스페인인들이 접어진 ‘사회적 고독’은 움직일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으로 그려진다. 억압과 통제, 고립과 단절, 고난과 좌절의 현실은 한 개인이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철학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의해 부과된 숙명적 질곡으로 부각된다. 요컨대, 전후 소설의 리얼리즘은 역동성을 결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한 ‘반영’은 현실의 비극성과 회극성을 중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전망을 결여한다는 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고독’은 “부르주아적 주관주의 메카니즘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정형의 현실에 대한 관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러한 무기력한 관조를 통해 필연적으로 개인을 압도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인지하게 만든다.¹⁶⁾

그러나 전후 리얼리즘은 전쟁의 기억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만 설명될 수는 없다. 내란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지만, 전후의 리

14) *Meditación del Quijote, Obras completas*, Alianza, Madrid, vol. I., 1983, pp. 388-389.

15) “인물들은 행동한다기보다, 무언가를 실현한다기보다, 그냥 움직인다. 아니 그냥 머물러 있다. 목표를 몰라서라기보다 폐쇄와 침묵으로 빚어지는 결과이다. 『성난 사람들 *Los bravos*』 (고통받는 자들 *los sufridos*)과 『침묵의 시간 *Tiempo de silencio*』은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즉 ‘수동적 삶’의 행태를 드러내는 당대 소설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시사해주는 두가지 제목이다.” (Gonzalo Sobejano, *Novela española de nuestro tiempo en busca del pueblo perdido*, Prensa Española, Madrid, 1975. Rec. *HCLE*, op. cit., p. 424).

16) Raquel Asún, <<Introducción>> a *La Colmena*, Castalia, Madrid, 1987, p. 22.

얼리즘의 양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뒤이어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도 살펴야 한다.¹⁷⁾ 대외 문호 개방과 경제적 발전, 그리고 교육정책의 개방은 얼마간 자유로운 지적 분위기를 준비해 주었고, 문학은 보다 선명한 문제의식을 통해 현실 참여적 ‘반영’을 지향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특히 내란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작가 세대는 과거의 유산을 정치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청산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학을 현실 변혁의 능동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정치적 의식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그러므로 전후 리얼리즘을 전쟁 직후의 고정된 시점에서 조망할 수는 없으며, 리얼리즘 소설의 전개과정은 사회적 상황의 점진적 변화를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쯤이면, 전후 리얼리즘의 두 경향으로 나뉘어진 네오리얼리즘과 사회소설은 그 이념적 범주가 다소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차별성은 사회적 변화의 시차로 정리될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네오리얼리즘의 실험적 성격은 50년대 전반에, 계급의식과 사회변혁의 정치적 이념이 강조되는 사회소설은 50년대 후반에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얼마간의 정치적 자유화가 리얼리즘의 전개 과정에서 주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네오리얼리즘과 사회소설의 경계는 확연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네오리얼리즘 역시 현실 반영을 주된 미학적 생성력으로 삼고 있는 점은 사회소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실 반영의 사회성과 미학성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아 볼 수 있겠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네오리얼리즘은 사회소설이라는 개념보다 미학적 원리에 좀 더 비중을 둔 것이 아닌가? 네오리얼리즘을 논하면서 대부분의 평자들이 객관주의나 행동주의 또는 영화 기법과 같은 형식적 요소를 주로 강조해왔던 것은 그 때문일지 모른다. 정치적 통제라는 외적 요인과¹⁸⁾ 리얼리즘의 내재적 한계의 극복이라는 양면적 원

17) 이 무렵부터 망명작가들과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완만하게나마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문호의 개방과 더불어 유럽 관광객들의 유입과 스페인인들의 해외 노동 유출이 증가한다. 또한, 도시인구의 대량 유입도 작가들로 하여금 비판적 현장 소설에의 동기를 유발한 사회적 변화 요인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Ferres, Salinas, Caballero Bonald, López Pacheco, Grosso, Juan Marsé, Fernández Santos Ferlosio, Martín Gaité, Juan y Luis Goytisolo, Aldecoa 등의 작품은 그러한 변화를 대변해준다.

18) 전후 스페인의 출판 검열법이 카톨릭 교회와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을 엄격하게 통제했던 사실을 상기해 보라.(Manuel L. Abellán, *Censura y creación literaria en España (1939-1976)*, Península, Barcelona, 1980, pp. 88-89)

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네오리얼리즘은 단순한 현상파괴의 리얼리즘 이념에 대응하여 미학적 원리의 구현을 통한 현실 접근을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점에서 전후 리얼리즘의 중심 테마 중의 하나인 ‘사회적 고독’을 이념적 갈등의 차원에서보다 미학적 형식을 통해 제시하게 되었을 것이다. 사회소설에서 드러나게 될 계급적 대립과 혁명주의적 역동성에 비하면, ‘사회적 고독’이라는 네오리얼리즘적 관찰은 현실 인식의 동기를 상대적으로 정태화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미학적 생성력의 정도를 네오리얼리즘과 사회소설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설정하는 준거로 삼아볼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네오리얼리즘의 형식적 요소들이 어떻게 사회 이념적 요소와 맞물리게 되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III

네오리얼리즘을 외적 상황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현실재현 행위가 정치적으로 한계지워질 때 그러한 강제적 상황이 오히려 심미적 실험을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스페인 네오리얼리즘은 이태리의 영화 조류, 미국의 행동주의, 불란서의 누보로망과 실존주의, 마르크시즘의 문학이론 등 당대 서구의 사상과 문예사조적 동향은 물론, 우나무노 Miguel de Unamuno, 바로하 Pío Baroja 등 98세대, 멀리는 끌라린 Leopoldo Alas Clarín, 갈도스 Benito Pérez Galdós 등 19세기 자연주의에 이르는 스페인의 사상적 전통을 수렴한다. 문제는 네오리얼리즘이 내포하는 실험적 성격이 어떻게 다양한 사조의 서사적 성격과 배경을 통합하고 나름대로의 미학적 원리를 창출하며, 또 그러한 미학적 통합 원리에는 어떠한 현실 해석의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네오리얼리즘의 서사적 특징을 말하라면, 무엇보다 반서사적 서사체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구성의 중심 요소 중의 하나인 인물 제시에 있어서 네오리얼리즘은 인물을 통해 사건을 동기화하는 원초적 서사 기법을 거부한다. 오히려 인물은 정물적 요소로 등장한다. 물화, 표본화 또는 군집화된 회화적이거나 아니면 반서사적인 인물제시가 두드러진다. 즉, 인물의 내면이나 심리적 동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상황에 대한 감각적 물리적 반응을 평면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과의 가치 대립을 통해 존재의 문제를 동기화하는 소설적 주인공에서 보여져

야 할 심리적 갈등구조를 찾아 볼 수 없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도발적 의지를 결여한 무중심적 인물들의 군집적 속성이 부각되고, 지배와 억압의 현실에 무의식적으로 순종하는 단선적 인물들의 평면적 행위가 단조롭게 나열된다.

수빈 Darko Suvin이 분석한 것과 같이 모든 인물에는 ‘성격 character’, ‘유형 type’, ‘행위자 agent’의 기능이 병존하지만,¹⁹⁾ 네오리얼리즘 소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인물 기능은 ‘유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형적 인물들은 스페인 사회의 전통적 직업, 성, 계급에 따라서 유형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성격이 짝지워져 있다. 『별집』의 로사와 『마리오와의 다섯 시간』에서의 까르멘은 스페인의 보수적이며 전제적인 여인상으로 쉽게 짝지워질 수 있으며, 전자의 마르틴과 후자의 마리오도 리버럴리스트의 유형적 인물들이다. 『별집』의 인물들이 스페인 풍속주의를 상속한 ‘전형 인물 묘사’의 예시적 모범으로 언급되었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²⁰⁾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네오리얼리즘의 유형적 인물들이 자연주의에서와 같은 현실의 총체적 서사화를 위해 제시되는 서사적 전형인물들이 아니며, 역사적 당대성과 전망을 제시하는 루카치적 ‘전형’인물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단지, 익명화, 몰화, 객체화된 외형적 인물 표본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알보르그 Juan Luis Alborg가 50년대 소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초월적 야심”의 결여를 지적한 것은 옳미해 볼 만하다.²¹⁾

여기서 네오리얼리즘적 서사의 미학성이 다시 문제로 대두한다. 인물의 군집성과 몰화는 형이상학적 인간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헬러 A. Heller는 예술작품이 “인간의 실존적 고독의 이미지 the images of our existential solitude”를 제시하는 데 대해, 철학은 “비사회적 사회성의 이미지 the mirror image(metaphor game) of our unsocial sociality,” 즉 갈등, 동맹, 전횡, 사랑, 우정 등과 같은 애정과 타협의 정치적 도덕적 관계구조를 제시한다고 지적한다.²²⁾ 이는 철학은 사회적 구조에 대한 담론이고 예술은 개별적 실존에 대한 담론이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네오리얼리즘의 서사 구조는 半(反)예술적이고 半(反)철학적인 것인가. 정치적 사회 구조를 재현하는 것 같으면서

19) Darko Suvin, “Can People Be (Re)Presented in Fiction?: Toward a Theory of Narrative Agents and a Materialist Critique beyond Technology or Reductionism”,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niv. of Illinois Press, Chicago, 1988, pp 677-678.

20) Raquel Asún, *op. cit.*, p. 23.

21) *Hora actual de la novela española*, Tomo I, Madrid, 1958, p. 23.

22) Agnes Heller, *Can Modernity survive?*, Polity Press, Oxford, 1990, p. 66.

도 엄밀한 분석적 제시이지 못하며, 존재의 고독과 좌절을 재현하는 것 같으면 서도 실존적 문제의식을 지워 놓고 있으니 말이다.

이같은 인물 제시와 서사 구조로 반감되는 네오리얼리즘의 예술성은 사회적 문제의식이라는 텍스트의 메시지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사의 기술적 원리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재평가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인물의 탈중심화, 군집화, 물화는 네오리얼리즘의 반서사적 회화성 또는 공간적 밀집화와 맞물려 있다. 소모적 삶의 양식에 내던져진 인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압도된 존재의 물가치성, 사건적 갈등의 부재, 사회적 관계의 기계적 반복성은 서사의 시간적 진행을 유보시키고 소설을 정태적 묘사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다. 소설의 구조가 시간구조가 아니라 공간지향적이라는 말이다.

소설은 본래 다이어지시스 *diegesis*를 근간으로 하는 이야기 서술이며, 시각 예술이나 공간 예술과는 달리 반미메시스적어서 묘사는 보조적이다. 지라르 주네트 Gérard Genette는 소설에서의 서사와 묘사의 관계를 헤켈 식의 '주인-하인 *master-slave* 원리'로 설명하면서, 서사는 묘사를 필요로 하면서 결코 묘사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관계에 놓인다고 말한다.²³⁾ 그러나 소설의 일반적 서사 축과는 달리, 네오리얼리즘에서는 오히려 묘사가 서사를 지배하고, 공간이 시간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²⁴⁾

이를테면, 『하라마 강』에서 루시파라는 한 인물의 역사 사건은 하나의 서사 구조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설 전체에서 그 서사성이 지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그 정황 요소들이 인과적으로 교직되고 있다기보다는 단편적 대화나 국부적 에피소드들이 불연속적으로 나열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서사 자체가 이미지화 공간화되는 것을 뜻하며, 그래서 하라마 강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상징의 장으로 환원되기에 이른다. 똑같은 공간화의 원리는 『마리오와의 다섯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가르멘에 의해 현재 시점에서 회고되는 23년간의 과거는 사건의 인과적 교직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이념과 가치관을 정당화해주는 일화들의 불연속적 나열과 자기중심적 해석 행위에 의해 채워지고 있는 회화적 공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요컨대 행위의 시간적 서사와 그 인과적 해석에 의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사건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

23) Gérard Genette, *Figures of Literary Discourse*, Columbia Univ. Press, 1982, p.136. (W.J.T.Mitchell, <<Space, Ideology, and Literary Representation>>, *Poetics Today*, Vol. 10, No. 1, Spring 1989, p. 92.

24) 그런 의미에서 네오리얼리즘 소설은 Guillermo Torres의 말대로 반소설 *antinovela* 일 수 있다 (*op. cit.*, p. 208).

이 아니라, 언행이나 자질들의 반복 제시를 통해 평면적으로 또는 회화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말이다. 전쟁의 잠재 의식, 가난, 성, 무지, 이념적 도착과 같은 사회적 현상들이 인물의 대화나 행동, 현장성과 단편적 일화들을 매개 구조로 공간적으로 채색되는 것이다.

이같은 네오리얼리즘 소설의 반 서사적 구조는 '반수사적 미학' 또는 '부정화의 수사학'이라고 불러볼 만 하다. 왜냐하면, 인물의 구성적 제시나 시간적 서사 원리 즉 다이어지시스와 같은 소설의 원초적 수사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설의 부정 또는 심지어 소설의 죽음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폄하될 수도 있다. 데리다 Jaque Derrida가 담화가 공간에 착지할 때 담화는 죽음으로 인도되는 것이며, 그것은 화자의 죽음이자 "태 the spirit of voice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²⁵⁾ 목소리가 생명력을 잃는다는 것은 문자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데리다의 말대로라면 소설의 공간화는 곧 문학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네오리얼리즘 소설을 죽은 문자들의 공동묘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론적 극단화가 여전히 한가지 이론으로 설득력 있게 들려오는 한, 그것은 반대의 목소리를 이미 자신의 목소리 속에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오리얼리즘의 공간화는 소설의 죽음을 위한 자학적 서사행위일 수만은 없다. 반서사적 서사구조 또는 부정화의 수사학은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지키고 전달하려는 '태'의 역설적 보존 방법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거기에서 서사적 반향이 울려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네오리얼리즘이 여전히 또다른 비평적 담론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이다. 요컨대, 스스로 화자의 죽음을 선언하는 객관주의를 지향하는 네오리얼리즘의 소설 형식도 담화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해석적 전략을 내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르페가는 이미 고정되고 신화화된 과거를 '서사 narración'하는 서사시 épica에 대해 오히려 소설이 '묘사'의 원리에서 탄생했다고 보고 있다.²⁶⁾ 소설이 본질적으로 '현재'를 테마화하는 한,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교직하는 서사시와는 달리 '이야기'의 서사가 아니라, 현재의 묘사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오르페가는 소설이 다루는 과거가 '역사적' 과거가 아니라 '허구의'

25) *Of Grammatology*, translated by Gayatri Spivak, Baltimore, John Hopkins Univ. Press, 1974, p. 39. 데리다에게 "공간이 부정되는 공간 a negative space, a non-existent space, a dubious alien space"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그것은 문학의 유토피아이자 욕망의 핵심부이다.

26) José Ortega y Gasset, *Meditaciones del Quijote*, op. cit., pp. 369-373.

과거이며, 따라서 소설은, 비록 허구일지라도, ‘과거’를 이야기함으로써 필연 ‘서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셈이다. 허구의 과거는 서사적이라 하더라도 그 서사적 ‘행위 performance’는 현실 묘사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부인할 도리는 없다. 어쨌거나, 오르떼가의 범주화를 원용해 보면, 네오리얼리즘 소설의 공간화 전략은 ‘과거의 테마화’라는 ‘서사적 epic’ 원리를 ‘현재에 테마화’라는 소설적 원리에 교묘히 접합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네오리얼리즘이 과거의 신화적 서사성을 현재의 묘사적 공간에 은밀하게 삼투시켰다는 식의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서사적 과거를 서사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묘사의 공간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네오리얼리즘이야말로 오르떼가가 말하는 소설의 ‘묘사적’ 기원을 충실하게 재현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인물이나 공간을 동기화, 입체화, 역동화하는 서사적 전개가 지극히 억제된 네오리얼리즘 소설은, 그 대신, 현재의 시점에 역사적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응축시킨다. 역사적 과거에 의해 인물들의 현재와 존재 양식이 조건지워지고 그들의 언어와 행동에는 미래의 절망적 빛깔이 반영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인물들의 사회적 존재 조건이 무시간적으로 항구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같은 항구화는 현실을 고체화하고 인물을 물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지점에 이르면, 앞서 제기한 네오리얼리즘의 미학적 한계가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半(反)예술적이고 半(反)철학적인 네오리얼리즘의 희석된 미학성이 복구되는 것은 ‘묘사적’ 원리에 ‘서사적’ 원리를 통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인물의 평면적 제시, 과거와 미래의 현재에로의 평면적 삼투, 소설 공간의 회화화는 바로 그러한 통합의 서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벌집』, 『하라마 강』, 『마리오와의 다섯 시간』 등에서 나열되는 파편적 에피소드들은 바로 서사의 평면화, 시간의 공간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사회적 실존의 한계상황, 정치적 압제와 교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회생되는 인물군의 저항적 이념은 네오리얼리즘의 ‘묘사적’ 서사 기법에 의해 미학적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네오리얼리즘이 스페인의 현재는 물론 그것을 조건짓고 있는 과거와 그것에 의해 필연적으로 조건지워질 미래에 대해 나름대로의 비판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도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절망과 부정은 이야기 narrativización의 종말이나 부정을 의미하며, 과거로부터 미래로의 역사의 진행에 저항하려는 것이다. 네오리얼리즘 소설이 역사적 진행의 중단이나 역사적 과거에 의한 사회적 질식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즉 서사적 시간이 공간으로 삼투된다는 것은 절망적 현실과 미래를 향해 뿌리내려 있는 과거의 인과

적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일 것이다.

역사적 과거는 ‘대서사 Gran récit, Great narrative’의 장이며, 과거의 거부는 다름아닌 스페인의 현재 속에 살아 있는 신비화된 역사들, 즉 대서사들을 허구화하고 탈신비화하려는 기도로 나타난다. 까르멘의 독백이 보여주는 해학과 아이러니는 그러한 탈신비화의 결과이다. 현재의 삶을 지배하는 과거의 신화를 맹신하는 까르멘의 자기 예찬론은 이미 자기부정의 반어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고이띠솔로 Juan Goytisolo의 『속임수 Juegos de manos』에서 아나키즘의 희생양 다비드의 죽음은 무지향적 이념의 단순성이 초래한 과오가 아니라 과거와 현실의 공존으로 화석화된 스페인의 정체성에 대한 자해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

무적함대와 영웅전사의 시대, 식민제국의 위용, 합스부르크 왕통의 계승자, 카톨릭의 맹주와 같은 스페인 민족의 아이덴티티와 일체성을 합법화하는 통일적 대서사들은 전체주의의 스페인에서 여전히 현전하고 오히려 위세당당한 신화적 서사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신화적 대서사들에 의해 담보된 스페인 민족의 아이덴티티나 통일성은 어디까지나 지배계급 중심의 자기 정체성이요, 이념적 지배 논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소외계층이나 피지배계급의 역사나 이념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전후의 역사적 좌절, 미래에 대한 절망, 패배주의적 현실을 무기력하게 강요당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념적 소외계층은 전통적 ‘절대국가주의’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스페인의 또다른 반쪽인 것이다. 현재 속의 과거와 미래를 거부하려는 반서사적 형식의 네오리얼리즘은, 역사적 과거와 그 신화적 대서사들을 허구화하는 네오리얼리즘은, 그 또다른 스페인이 제기하는 소외의식과 비판적 이념을 수렴하는 미학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IV

살펴본 바와 같이, 네오리얼리즘의 수사학은 현재와 과거가 엮물린 신화적 공간을 통해 현실을 해석한다. 『별집』에서 각 계층에 속한 다양한 마드리드인들의 삶을 질식시키는 과거의 존재를 관찰할 수 있다면, 『마리오와의 다섯 시간』에서 까르멘은 스페인의 복고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집단적 전형이다. 그러나, 과거의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 『페레사와의 마지막 며칠 오후』에서 상반된 두 계급의 주인공 페레사와 마놀로가 이번에는 거꾸로 그들을 도취시킨 계급 투쟁이라는 ‘현재’ 속의 신화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스페인적 부르주아지 전통의 과거가 여전히 현전하고 여전히 현재의 굴레로 엄존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마그니니 곤잘레스 S. Magnini González는 그러한 탈신비화의 반어적 수단으로 피카레스크적 리얼리즘과 로망스의 아이디얼리즘을 결합하고 있다고 적시한다.²⁷⁾

그렇다면, 이들 소설에서 부각되는 과거의 탈신비화는 동시에 스페인과 스페인인들의 정체성의 모색이라는 이면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카톨릭 전통의 신성한 스페인 민족이 만들어 온 신화들에 대한 반어적 풍자와 비판은, 궁극적으로, 신화가 아닌 스페인인들의 진정한 기원과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될 수 있다. 『속임수』에서 다비드로 상징되는 스페인 민족의 “부르주아적이고 기독교적인 자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은²⁸⁾ 네오리얼리즘에 함축된 자기 정체성의 문제의식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속임수』가 내면적 아이덴티티를 문제삼고 있다면, 『별집』은 그 아이덴티티의 외형적 면모를 탐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역사적 과거란 무엇이고 그 신화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서 스페인의 진보적 사상전통과 세계관을 ‘미학적’이라고 평가한 갈반 Tierno Galván의 말은 매우 시사적이다.²⁹⁾ 이는 크라우시즘 Krausismo 이래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추구한 스페인인들의 사상이 이성적이고 논리적 추론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경험적 직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갈반은 ‘미학적 세계관’이란 말을 빌어 절대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자유주의 이념들조차 실천적 기능주의라기보다는 보다 ‘수사적’이고 ‘미학적’인 개념적 장식물이고 소수 지배 계층의 압제적 장치들이라고 규정한다.³⁰⁾

갈반이 시사한 ‘개념적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절대 관념들이란 무엇인가? 크라우시즘 이래 자유교육원을 거쳐 20세기 전반을 풍미한 스페인 지

27) <<Últimas tardes con Teresa: Culminación y destrucción social del Realismo Social en la novelística española>>, *Anales de la narrativa española contemporánea*, Society of Spanish and Spanish-American Studies, 1981, pp. 16-17.

28) María Dolores de Asís Garrote, *op. cit.*, p. 230. 이러한 문제의식이 극명하게 대두되는 것은 『정체성의 증거 *Señas de identidad*』 (1966)이다.

29) Juan Marichal, *El nuevo pensamiento político español*, Finestre, México, 1966.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op. cit.*, p. 81).

30) *ibid.* ‘미학적’이란 말은 경멸적 토운으로 언급된 것이며, ‘유토피아적’에 조응하는 개념으로 차용하였다. 갈반은 수사와 권력을 같은 말로 간주하고, 스페인의 가장 우선적인 정치적 과제는 수사적 절대 관념과 상징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들이 지향한 사상적 요체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이며, 지식인의 소명은 부단한 자기실현을 목표로 초월적 진리의 체득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다. 게다가, 스페인의 진보 사상과 자유주의 이념은 불멸의 영혼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뿌리깊은 카톨릭 사상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역사적 진리는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사상과 이념은 관념적 절대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³¹⁾ 역사주의, 무신론, 변증법적 유물론을 배격하는 스페인 사상의 일관된 맥락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50년대의 사회소설이 근간으로 하는 막시즘은 스페인의 사상 풍토에서 초월적 진리를 변형, 왜곡, 일탈시키는 역사적 상대주의로 치부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절대 관념'이나 '미학적' 장식물로 치장된 자유주의의 이념은 현실을 개혁하고 스페인의 운명을 개척해 가는 데 어떻게 기능했는가? 사실, 98세대의 사상적 지평은 진보와 개혁의 기치에도 불구하고 결코 진보주의의 이데올로기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나무노가 스페인의 현실을 비판하는 관점도 사회적 정치적 이념보다 형이상학적 동기를 우선시하였으며, 그를 포함한 98세대의 이데올로기가 19세기 이래 유럽의 실증주의에 대한 저항의 잠재의식과 복고적 이상주의 사이의 산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³²⁾ 이점에서 스페인 사상의 '미학적' 전통은 1920년대 이후 급진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억지하는 반동적 힘으로 작용하였을 법하다. 적어도, 보수주의의 극복논리로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어 온 스페인 자유주의 이념이 급진 사회주의의 한계를 구획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가정은 가능하다.

결국, '미학적' 이데올로기는 현실 변혁과 스페인인의 해방을 추구한 자유주의 스스로 전통적 지배 질서를 고착시키는 역기능을 보인 것은 아닌가. 그 '미학적' 자유주의는 전통적인 신분적 사회관계를 전복시키기보다 카톨릭의 계층적 질서를 항구화하고 고착화하고 합법화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역이용되었을 수도 있다. 톰슨 John B. Thompson이 정리한 이데올로기의 기능양태 *modus operandi*에 따르면, '미학적' 자유주의는 통일적 전체주의

31) *Ibid.*, p. 68.

32) Geoffrey Breton, *Principles of Tragedy. A Rational Examination of the tragic concept in Life and Literature*, Univ. of Miami Press, 1968, p. 60. 또한, 크라우시즘의 영향을 받은 갈도스 B. P. Galdós의 절충주의적 이데올로기나 빠르도 바산 E. Pardo Bazán의 스페인 국민 전통을 옹호하는 비평 태도에서 졸라 E. Zola식 자연주의의 극단적인 정치 도덕적 이데올로기가 배척되었던 점을 상기해 보라.

이념을 지향하는 지배계급의 위장과 합법화의 이데올로기로 쉽게 전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³³⁾

우나무노가 제시한 스페인 민족의 불멸의 영혼은 전체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일체화 unification'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며, 크라우시스코 이래 라인 P. Laín Entralgo에 이르는 인간 완성의 이념은 카톨릭 정신과 프랑코주의의 복고적 이상주의를 '보편화 universalization'하는 이데올로기로 바뀌어질 수 있다. 사회개혁과 정치적 변화를 추구한 스페인 지성의 미래지향적 노력이 현상유지를 위한 절대주의나 전체주의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봉사한다는 역설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스페인 사상이 내세운 '영혼', '완성', '불멸'과 같은 절대관념들은 스페인 제국의 재건, 카톨릭의 이상과 교회 정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신분적 질서를 미화하고 지배-예속의 체제를 강화시켜줄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해 왔다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때때로 라인이나 심지어 오르페가와 같은 스페인 지성과 파시즘 사이에 이념적 친연성이 지적되어 왔던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네오리얼리즘이 현재의 공간으로 삼투된 역사적 과거를 탈신비화하고 있다면, 우리의 논의는 그러한 미학적 전략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그 이념적 배경과 한계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로 귀결된다. 98세대와 네오리얼리즘 세대가 스페인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뇌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한 알바레스 팔라시오스 F. Alvares Palacios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스페인의 영혼과 같은 신화적 불멸의 가치를 추구한 98세대와는 달리 네오리얼리즘 세대는 문제의 본질을 사회적 가치에서 찾았다고 지적한다.³⁴⁾ 그렇다면, 네오리얼리즘이 추구한 사회적 가치와 이념은 과연 무엇인가? 전후 스페인의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낙후현상의 원인을 정치체제의 왜곡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려는 작가들의 현실 인식은 정치 권력의 통제에

33) *Ideology and Modern Culture*, Stanford univ. Press, 1990, pp. 60-67. 그는 이데올로기의 지식사회학적 개념을 준용하여 이데올로기의 기능양태를 합법화 Legitimation (지배관계의 재현이 얼마간 효과적인 상징적 형식으로 합법성을 구하는 경우), 위장 Dissimulation (지배관계가 은폐, 부인, 모호화에 의해 확립 유지되는 경우), 일체화 Unification (지배관계가 개인의 차이나 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들이 상징적 차원에서 집단적 아이덴티티 안에 구성될 때), 분편화 Fragmentation (지배계급에 대한 효과적 도전세력이 될 수 있는 그룹이나 개인들을 분파시키는 경우), 물화 Reification (일시적 역사적 사물 또는 사안의 상황을 항구적 자연적인 시간 밖에 군림하는 것으로 재현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한다.

34) *Novela y cultura española de postguerra*, EDICUSA, Madrid, 1975, p. 47.

의해 스스로의 정치의식을 은폐하려는 소극적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은 지적인 바와 같다. 그러나 네오리얼리즘은 반영의 외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배체제를 교란하려는 이데올로기를 ‘은폐’하고 있다는 적극적 의미 부여도 가능할 것이다. 마땅히 그것은 현실 비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려는 정치적 태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네오리얼리즘을 진보적 이념에 역행하는, 또는 자유주의 사상의 역기능을 무화시키려는 이데올로기적 전략으로 이해할 때, 네오리얼리즘은 스페인 리얼리즘 전통과 ‘미학적’ 사유의 틀을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범주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미학적’ 사유와 과거의 유물로 치장된 현재를 드러내는 네오리얼리즘이 구사한 ‘부정화의 수사 원리’는 스페인 리얼리즘의 해학을 상기시킨다. 아시스 가르페가 지적한 대로, 네오리얼리즘은 스페인 민족의 인물 전형에 대한 대표적 묘사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문학의 전통적 휴머니티를 재현함으로써 스페인 리얼리즘 전통과 온전히 접목되고 있는 것이다.³⁵⁾ 네오리얼리즘은 바로 스페인 본래의 ‘미학적’ 사유와 신화적 서사 구조에서 새로운 현실인식의 방법을 차용한 셈이다.

그렇다면, 네오리얼리즘 소설이 보여주는 화자의 침묵은 무언의 방관이 아니라, 현실의 왜곡을 해학적으로 교란하는 수사적 침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네오리얼리즘 소설의 수사적 침묵과 자조적 해학이 내란과 세계대전 후의 좌절과 고뇌에 대한 스페인적 반응이라면 그것은 불란서의 실존주의가 보여준 부정의 긍정적 국면 전환이라는 양가주망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가지 태도는 다같이 인간 현실의 재건이라는 지상명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며, 다만 네오리얼리즘은 스페인적 정서인 인간애에 뿌리를 둔 해학적 휴머니즘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데서 차이를 드러낸다. 갈반의 통찰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이 일방적 질대관념으로 비약해가는 스페인인들의 사상적 불구성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네오리얼리즘의 해학성은 바로 그러한 불구성과 실천 윤리의 결핍에 대한 자기 풍자적 태도에서 출발한다.

자기비판적 시각을 통한 현실 재현은 전후 스페인 사회의 계층간 소외와 지배 구조를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고 우회적으로 비판 또는 교란하는 이데올로기적 전략을 내포한다. 『속임수』는 과거의 역사적 유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정부적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이념적 방황에 스스로를 내던진 스페인인들의 자학적 자화상이기도 한 것이다. 『벌집』의 이미지를 통해 지향점을 상실한 스페인 사회가 피할 수 없게 된 계층간 균열과 단절의 벽이

35) *op. cit.*, p.38.

상각되고 있다면, 『마리오와의 다섯 시간』에서 여주인공을 통해 표현되는 스페인의 이미지는 결국 마리오를 자기분석적 거울로 등장시킨다. 이같은 자기 반영적 거울 이미지는 네오리얼리즘의 공간화 수사학이 가능하게 해주는 미학적 원리이다. 그것은 또한 이념적 공간의 균열을 비판적으로 노출시키려는 전략을 내포한다.

여기서 네오리얼리즘은 현재의 공간을 지배하는 과거의 질서를 파괴하고 신화적 이미지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스페인 사상과 이념의 ‘미학적’ 불구성을 풍자하고 사회적 불의의 이데올로기적 근원을 비추어 낸다. 미학이, 이글턴 Terry Eagleton이 언급한대로,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과 소유욕을 보편적 인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며, 실체의 급진적 중심이완을 의미하며, 정치 없는 부르주아 계급에 정치적 해계모니와 상상의 위안을 공급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³⁶⁾ 네오리얼리즘은 스페인 사상의 바로 그 ‘미학적’ 이야말로 무엇보다 먼저 철저하게 비판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덕적 진지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학적 수사법을 통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네오리얼리즘 소설은 경직된 ‘절대 관념’들과 신비화된 ‘대서사’들에 대한 관찰 시점을 관념에서 현실로 끌어내린다. 스페인 자유주의의 몽상을 현실적 좌절과 패배주의의 현실적 투사로 바꾸어 놓는다. 파시즘 또는 전체국가주의로 이름을 바꾼 절대주의의 폭력 앞에 무력화된 미학적 자유주의에 대해 침묵으로 시위한다. 반소설적 부정화 수사학, 객관적 묘사주의, 탈시간적 공간화는 미학적 대서사에 대응하는 침묵의 서사이다. 수사적으로 포장된 자유, 불멸, 진보의 절대 이념과 신화적 과거가 물려준 허무와 무력감을 비수사적인 방법으로 드러낸다. 과거의 사상과 신화의 탈신비화를 통해 현재의 왜곡된 질서를 투시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통일적 세계관의 파편화, 유기체적 사회관의 분해와 고립화, 윤리적 실체로서의 인간관의 생물학적 표본화 등은 미학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교란한다. 그렇다면 네오리얼리즘은 미학의 유물적 기원을³⁷⁾ 재현하는 것이며, 갈반이 말하는 ‘미학적’ 사상 전통에 대한 안티테제이다.

36) T. Eagleton, “The Ideology of the aesthetic”, *The Rhetoric of Interpret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Rhetoric* (ed. by Paul Hernadi), Duke Univ. Press, Durham and London, 1989, p. 85.

37) 이글턴의 유물론적 입장을 따라가 보면, 미학은 봄가르텐 Baumgarten 이래로 원래부터 정신세계의 소산이 아니라, 육적 세계의 새로운 자각에서 기원한다. 정신세계의 이면에 인간의 오감에 의해 창출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육적 감각적 욕구가 미학적 생산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미학은 가장 원초적 형식의 유물론이다. (*The Ideology of the Aesthetic*, Basil Blackwell, Cambridge, p. 15).

그러나, 네오리얼리즘의 이데올로기적 전략은 스페인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총체적 부정일 수 없으며, 순전히 마르크시즘적 유물론의 계승일 수도 없다. 네오리얼리즘은 스페인 자유주의 진보사상에 대한 안티테제이지만, 그 총체적 부정이 아니라 극복과 수렴의 변증법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네오리얼리즘은 마르크시즘 전통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부정의 목표로 삼은 스페인 사상전통 내부에서 유물적 동기의 보편성을 복구한다. 스페인 진보주의 전통은 그 '미학적' 관념화에도 불구하고 유물적 보편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한 것은 아니며 초월할 수도 없다.³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유대감의 호소는 그러한 보편적 실천원리로 이해될 만하다. 갈반에게 실천적 기능을 결여한 부정적 의미의 절대지향적 관념주의로 보여지는 스페인의 '미학적' 자유주의 전통은 바로 그 '미학적'의 이면에 자유가 억압당한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적 연대의식과 같은 삶의 진정한 이념 또한 이미 내포한다. 네오리얼리즘은 자유주의 사상 전통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학적 절대 이념 속에 은폐되어 있던 본원적 동기를 드러내며, 자유주의의 보편적 윤리를 회복하려는 실천적 이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의 극복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조한 스페인 황금세기의 타키투스주의 Tacitismo는 '국가 이성'을 내세워 군주의 절대권력을 옹호한 마키아벨리즘을 스페인적으로 수용한 사회주의 원리로 이해되거니와, 갈반이 경직된 교조주의나 공론주의를 타파하고 경험적 진리와 아포리즘에 기초한 타키투스주의를 실천적 이념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³⁹⁾ 관념보다는 경험과 실천적 의지에 근거를 둔, 추상화나 일반화를 지양하고 경험주의와 실천적 기능주의를 중시하는 갈반의 사회주의적 강령이⁴⁰⁾ 네오리얼리스트들

38) 여기서 '이데올로기 이론'의 역설로 되돌아가는지 모른다. 칸트가 미학적 인식의 순간에 주체와 객체, 가치 value와 진실 fact, 이성과 자연이 재결합한다고 했을 때, 그 미학적 인식이란 자아 ego와 세계의 상호 응시의 이미지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물질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미학은 주관적 판단인 미학과 보편성을 담보하려는 이데올로기의 양면적 성질을 가지므로, 미학과 이데올로기는 추상적으로 용해되기보다는 언제나 物自體 Ding an sich에 엮여 있다. 이러한 양면성의 갈등을 해결이 변증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면, 칸트는 '보편적 주관성 universal subjectivity'이라는 '절망적' 공식으로 해결한다. (ibid., p. 100)

39) 타키투스주의는 때로 교회보다 국권을 강조한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스페인적 반발로 이해되지만, 에라스무스주의가 추구한 종교와 사회의 합리화를 정치적 차원의 합리화로 발전시킨 이른바 에라스무스주의와 마키아벨리즘의 중간적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istoria del pensamiento español. Del Barroco a la Ilustración. Siglos XVII-XVIII*, Espasa-Calpe, Madrid, vol. III, pp. 100-101)

의 침묵과 해학에 깃들인 미래의 프로그램이었을 법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하면, 『별집』에서 셀라의 해학이나 『하라마 강』에서 작가가 인물들에 대해 갖는 애정과 연민, 그리고 『마리오와의 다섯 시간』에서 마리오와 가르멘의 이념적 단절을 극복하려는 아들 마리오의 희망은 스페인과 스페인인들의 새로운 자기 정체성과 실천적 이념을 향한 모색의 징후들일 것이다. 요컨대, 네오리얼리즘의 전통파괴는 ‘단절’이 아니라 ‘극복’을 통한 연속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과거의 사유전통을 ‘미학적’으로 파괴하는 동시에 그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네오리얼리즘의 소설 전략은 현실의 ‘객관적 제시’라는 고전적 리얼리즘을 극복하고 현실 모사의 원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는 셈이다.

V

지금까지의 논의는 네오리얼리즘이 스페인의 ‘미학적 세계관’을 탈신비화하여 우회적 현실비판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교란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자유와 구원의 인간관과 계층적 사회관에 입각한 스페인 사상의 과거 유물에 압도된 신화적 현재를 비판하고, 그 절대 관념들의 ‘미학적’ 허구성을 폭로한다. 현재를 신화적으로 지배하는 과거와 그로 인해 절망과 무력감으로 닫혀진 미래를 일거에 초시간적으로 투시하는 공간화의 전략을 통해, 네오리얼리즘은 스페인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말이다.

재현은 재현 그 자체로 이념적일 수 밖에 없다. 재현은 하나의 해석행위이며 네오리얼리즘은 스페인 자유주의와 사회적 이념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그 재해석은 미학적 주관성에서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으로의 시점의 이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장 객관적이기를 내세운 네오리얼리즘의 서사도 재현의 이념성에서 면제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까지 부정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억압적 지배구조를 비판하고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려는 자유없는 자들의 은폐된 언어를 생성해 낸다.

네오리얼리즘이 과연 그러한 현실 반영성과 적극적 이데올로기적 전략으로 이해될 만한 것인가는 전후 스페인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궁이 간다. 그 한가지 예는 전체주의와 카톨릭 국가

40) Juan Marichal, *op. cit.*, pp. 78-79.

이데올로기가 오프스 데이라는 세속적 교회기구를 통해 강력하게 가동하던 50-60년대에 오히려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구조물이 와해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⁴¹⁾ 그것은 네오리얼리즘의 정치적 침묵이 말 그대로 침묵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념적 가치중립의 태도를 표방한 네오리얼리즘은 나라 안팎으로 전란을 겪은 후 팽배한 역사적 패배주의의 소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레스가, 불란서의 누보 로망이 전후의 폐허나 공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허나 폐허 그 자체가 되는 것을 모토로 하였다면, 스페인의 네오리얼리즘 소설은 그 공허한 공간을 휴머니즘으로 다시 채우려는 노력이었다고 말한 것은⁴²⁾ 스페인 네오리얼리즘의 객관주의가 단순한 외래 형식의 실험적 수용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전후의 리얼리즘이 엄격하게 물개성적인 객관주의를 추구한다기보다 주관적 서정주의와 교차하고 있다는 노라의 지적은 스페인 네오리얼리즘의 한계이자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다.⁴³⁾

네오리얼리즘의 변모도 주목할만 하다. 50년대와 60년대의 네오리얼리즘은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폐쇄적 전체주의 사회가 점진적 개방화로 나아가면서 네오리얼리즘의 군집적으로 재현된 인물은 점차 물화 또는 개인주의화된 인물들로 대체되어 간다. 전쟁의 폐허와 허무의식에서 출발한 네오리얼리즘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60년대에 한결 진척된 자본주의적 사회현상에 주목하기에 이른 것이다. 50년대의 소설이 '절대국가주의'의 신화를 비판의 표적으로 하였다면, 60년대의 소설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결집하게 된다.

『페레스와의 마지막 며칠 오후』는 이미 사회적 이념 투쟁을 물질주의적 개인 의식의 문제로 바꾸어 놓고 있다. 네오리얼리즘의 비판은 이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네오리얼리즘적 사회 의식 그 자체로 화살을 겨누게 된 것이다. 또한, 50년대의 소설이 해학적인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우회적으로 제시한다면, 60년대의 네오리얼리즘은 보다 진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의식을 구조화한다. 결국, 현실의 평면적 인식이 입체적 인식으로 전환되고 침묵의 시위가 적극적인 분석적 문제제기로 바뀌어 가는 것을

41) 카톨릭의 사회장악 *conquista de la sociedad*이 증대될수록 카톨릭 신앙이 피폐해져 갔다는 역설적 상황이 이를 입증해 준다. 카톨릭 사제 수업을 받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카톨릭 신앙에 대한 회의가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Carlos Ramas, *La crisis española del siglo XX*, FCE, México, 1976, p. 379)

42) *op. cit.* p. 202.

43) *La novela española contemporánea (1939-1967)*, Gredos, Madrid, 1970, vol. III, p. 262. (Rec. *HCLE*, *op. cit.*, p. 204)

의미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침묵의 시간 *Tiempo de silencio*』은 네오리얼리즘의 미학적 패러다임이 후퇴하는 대신 그 이데올로기적 전략이 전경화되는 이정표적 소설이다. 스페인의 과거에 대한 마르틴-산토스 L. Martín-Santos의 비판은 스페인의 문제가 ‘망자들의 과두제’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한 오르페가 마저도 풍자한다. 네오리얼리즘이 다루어 온 신화적 과거는 물론 그러한 신화적 과거에 대한 ‘미학적’ 대응 태도를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침묵의 시간』은 네오리얼리즘의 이념을 계승하면서 네오리얼리즘의 형식적 한계를 실험한 전환기적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네오리얼리즘의 역사적, 장르적 의미를 정의해 볼 단계에 이르렀다. 앞서 네오리얼리즘은 소설의 형식적 실험에 사회 비판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접합시켰다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네오리얼리즘은 70년대의 본격적 실험 소설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효한 소설 장르의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다. 게다가 『침묵의 시간』을 네오리얼리즘에 합류시킨다면,⁴⁴⁾ 네오리얼리즘 장르에 요구되는 ‘객관주의’의 형식은 좀더 포괄적 서사기법으로 확장된다. 네오리얼리즘이 스페인의 전통적 이념과 가치를 허구화하고 파괴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것을 재구성하는 역사적 연속성을 주재화하고 있다면, 전후 스페인 소설의 성숙한 시발점이 된 『별집』에서 60년대의 이른바 ‘구조소설 *novela dialéctica*’에⁴⁵⁾ 이르기까지 사회지향적 소설을 관통하는 한가지 일반적 범주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가정은 당대 소설의 장르별 세분화가 드러내는 장르의 혼동을 피할 수 있고 현대소설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한가지 시금석을 마련해 준다는 이점이 있다. 더구나 단지 사회소설로만 다루어져 온 소설들이 미학적 평가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네오리얼리즘을 전후 소설을 관통하며 역사적 변화를 전개한 주요한 장르적 패러다임으로 상정하고 네오리얼리

44) Pablo Gil Casado (*op. cit.*, p. 258)는 『침묵의 시간』을 스페인 민족의 기질과 환경을 압축 제시한 이베리아인의 개요이자 스페인 사회의 근원적 문제를 다룬 사회소설로 간주한다. (rec. Gemma Roberts, *Temas existenciales en la novela española de Postguerra*, Gredos, 1978, p. 136)

45) 마르틴-산토스의 구조소설의 개념은 ‘지방적 리얼리즘 *Realismo Pueblerino* (역사적 맥락에서 정의되지 않는 모든 인물을 제시)’과 ‘도시적 리얼리즘 *Realismo Suburbano* (역사적 모순의 맥락에서 결정되어지는 인물 제시)’ 사이의 모순과 역동성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모순 그 자체인 현실의 투영을 가능하게 하는 리얼리즘을 가리킨다. (Jo Labanyi, *Ironía e historia en 'Tiempo de silencio'*, Taurus, Madrid, 1985, p. 13)

즘에 사회소설을 하위장르로 통합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내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가정이 결론적일 수 없는 것은 네오리얼리즘에 사회소설을 통합하려는 논거만큼이나 사회소설을 차별화하는 논거도 강력하게 대두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스페인 작가들이 문학의 사회성과 미학 원리 사이에서 이념성을 우선 가치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불란서의 누보-로망 작가들과 스페인 작가들 사이에 벌어진 1959년의 포멘터 Formentor 논쟁에서 소설 기법의 내재적 미학 원리를 강조한 불란서 작가들에 대해 스페인 작가들은 실험 기법을 현실의 정치적 문제의식의 표현에 기여하는 '효과주의'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⁴⁶⁾ 객관주의를 충실하게 실천한 가르시아 오르텔라노 J. García Hortelano조차도 "리얼리즘은 기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내용의 문제이며, 어떤 소설 기법도 리얼리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일반원칙을 제시했다.⁴⁷⁾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스페인 소설가들이 미학적 실험을 문학의 사회성에 대해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불가결한 요소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스페인 네오리얼리즘은 소설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성과 미학원리를 절충적으로 수용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게다가, 이념적 목적성에 더 경도된 이른바 사회소설들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소설을 네오리얼리즘과 독립된 소설 경향으로 구별할 확실한 준거가 없어지게 된다. 산스 비야누에바 S. Sanz Villanueva가 사회소설의 핵심 주제로 내세운 노동자 세계의 불의와 부르주아 계급의 치졸성에 대한 비판도⁴⁸⁾ 사실 네오리얼리즘 소설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 문제에 대한 증언과 고발의 소설 양식도 네오리얼리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사회소설과 네오리얼리즘을 구별하는 준거들은 본질적이라기보다 상대적이다. 현실과 사회문제의 현시성에서 양적 질적 차이를 보일 뿐, 현실에 대한 이념적 접근 태도는 양자가 상당히 중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근거를 내세우더라도 네오리얼리즘과 사회소설을 차별화하는 논리에 대해 긍정적인 것만큼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 네오리얼리즘이라는 전후 소설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그 내부에서 패러다임의 세분화

46) J.M.Martínez Cachero, *La novela española entre 1936 y 1980. Historia de una aventura*, Castalia, Madrid, 1985, p. 184.

47) Ignacio Agustí, <<Rebelión y continuidad en la novelística española>>, *Nuestro Tiempo*, núm. 71. (rec. J.M. Martínez Cachero, *op. cit.*, p. 195).

48) *op. cit.*, p. 119.

를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이를테면, 소설의 실험적 성격의 정도와 이념적 태도의 차별성을 두가지 변수로 상정하여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전후 소설 경향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전후 소설을 '네오리얼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이념성과 미학원리를 융합하는 실험적 단계로 규정한다면, 이같은 일반 원리 속에 네오리얼리즘과 사회소설의 장르적 구분의 문제를 수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후 소설의 일반 원리로 설정한 네오리얼리즘의 이념적 입장은 내란 전의 사회주의 이념을 수렴한 것인 동시에, 스페인 부르주아 전통의 자유주의 이념을 비판적으로 상속한 것이라는 절충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진다. 라마는 스페인의 전통적 보수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절대국가주의가 20년대를 고비로 소멸하며, 절대국가주의와 자유국가주의의 역사적 갈등은 3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급진사회주의와 극우주의의 대립으로 바뀐다고⁴⁹⁾ 지적하지만, 프랑코의 이념적 독재 하에서 급진적 사회주의 이념이 곧바로 희생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네오리얼리즘은 전후 스페인의 이념적 구도에서 약화된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한편, 여전히 스페인 자유주의 지성 전통의 사상적 적자로 머물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후 리얼리즘에 다양한 이념적 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괄적 조망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9) *op. cit.*, p.168.

Aspectos estéticos de la novelística neorrealista y su perspectiva ideológica

Kim, Chun-Jin

Examinamos en este trabajo la configuración estética del llamado 'neorrealismo' para descubrir en ella una perspectiva condicionada, en cierto modo, por el contexto histórico de posguerra. El término 'neorrealismo' ya implica una duplicidad estético-ideológica, cuando el subfijo 'neo-' modifica el realismo en el plano estético siendo, en cambio, el realismo mismo enraizado originariamente en una función crítica y subversiva de la realidad. A nuestro modo de ver, la retórica neorrealista constata esa dirección modificadora de la novelística realista como fiel reflejo ideológico de la circunstancia política y social de la España de Posguerra.

Una retórica contra-retórica y contra-épica del neorrealismo como un modo de superar el límite de la representatividad del realismo mismo, que se ejecuta a través de la espacialización desmitificadora del tiempo pasado, va paralela a una estrategización ideológica frente a la realidad opresiva bajo el régimen autoritario del Franquismo. Esta formalización contra-retórica no tiene que ser meramente una defensiva desanimada sino una manifestación contestataria ante la sociedad frustrada. La posición ideológica de la novelística neorrealista se deriva, según vemos, de una voluntad, al parecer, contradictoria de criticar y continuar la tradición del pensamiento español tan negativo por su extremo 'esteticismo' como positivo por su raíz profundamente humanística.

Ahora bien, los argumentos que diferencian el neorrealismo de la novela social nos parecen demasiado débil y relativo para delimitar ambos subgéneros. Más bien parece útil integrar los dos subgéneros en un paradigma neorrealista para que no incurramos en tal debilidad argumental. Para facilitar esta perspectiva integradora, convendría

aproximarnos a nuestro asunto a través de un doble enfoque estético-ideológico. De tal modo que nos proponemos reelaborar deliberadamente los elementos estéticos y los ideológicos como posibles variables según los cuales podríamos reclasificar el corpus multiforme de la producción novelística de posguerra antes de la década de los 70.